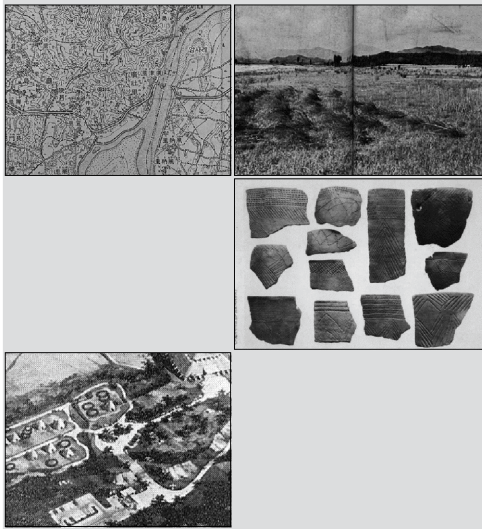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에 발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근대적 향유의 태동과 변천

- 암사동 선사유적을 중심으로 -

The Beginning and Transition of
Enjoyment of the Neolithic Age
Discovered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Prehistoric Sites in Amsa-dong-

김 해 경
전국대학교 조교수

김 선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연구관

I. 서론

II. 일제강점기 암사동 선사 유구의 발견과 향유의 태도

III. 암사동 선사유적의 발굴 과정과 가치 부각

IV.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기법

V. 결론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와 향유 과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암사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초기에 조선에 대한 고적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25년 대수해로 자연 노출된 후 비전문가에 의해 유물이 수습되었고,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개괄적 조사가 뒤따랐으나, 대중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였다. 1937년 광진교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1930년대 유행한 하이킹 코스에 암사리 유적이 포함되어 향유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때 빗살무늬토기와 수혈 주거지가 선사시대 유적으로 소개되었지만 별다른 보존 조치는 없었다. 해방 후에도 이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암사동 일대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구제발굴을 계기로 학술적 가치가 부각되었고, 1979년 사적 지정과 1980년대 종합정비계획을 통해 보존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후 공원 조성 및 암사 초록길 사업을 통해 생태·역사적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유적지 보존의 변천을 넘어, 암사동 유적을 둘러싼 향유 양상의 변화와 주변 공간의 재구성 과정을 함께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을축년 대홍수, 암사동 신석기시대, 하이킹, 빗살무늬토기, 암사역사공원

I. 서론

암사동 유적은 한반도 내륙 지역인 서울 한강 변에 위치하며, 대체로 기원전 5천 년에서 4천 년경 형성되기 시작한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주거지 유적으로 평가된다. 한국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유적으로서 국제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구(遺構)의 최초 발견 시기는 일반적으로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197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2년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유산 향유는 기억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공자의 관점과 향유 기법에 따라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식민지적 맥락에서는 감정적 서술이 개입될 여지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문화유산 향유라는 관점에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암사동 유적의 발굴 및 정비에 관한 연구와 문화유산 향유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유물인 토기와 석기를 단편적으로 소개하여 암사동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원룡 1962; 김정학 1969).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는 중서부 지역 신석기 문화의 편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한영희 1978). 이후에는 토기 편년(하인수 2003; 양성혁 2007) 제작 기술(이동주 2001; 홍은경 2010) 생계형 석기(이기길 1991; 丙山純藏 2001) 및 골각기 제작기법(윤정국 2015, 2021; 김영준 2022)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주거 공간 분석을 통한 암사동 유적의 특성 규명(정성희 1994; 김장석 2007; 조경철 · 이영한 2021)과 함께, 2010년 이후에는 백제 주거지(홍은경 · 문수균 2008) 및 청동기시대 주거지(김기룡 외 2016)의 존재가 밝혀지기도 하였다. 2014년부터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연구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졌다(이화중 · 김기룡 2020; 이화중 2023).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암사동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발굴이라는 행위를 통해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국내에서 문화유산 향유 개념은 1990년대 문화유산 인식 패러다임 변화 속

에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기되었다.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생활자 중심 문화정책 확대 및 한국적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구견서 1999) 역사유산 향유를 강조하는 ‘옛도시보존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남궁승태 1998). 2000년대 들어 문화재 향유권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으며(김수갑 2002), 문화유산은 보호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에는 문화유산 활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활성화 전략이 추진되었다(류호철 2014). 궁궐과 종묘 등 구체적 대상의 활용방안 연구도 이어졌다(이창근 2015).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향유적 개념을 인식할수록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애착과 자발적 노력, 정책 수용성이 증대된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이슬기·금현섭 2016). 과거 문화유산 정책이 원형보존에 집중하였다면, 최근에는 문화유산이 제공하는 ‘문화서비스’ 향유에 주목하는 추세이다. 암사동 유적을 대상으로 한 공원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한영희 1999; 지건길 2007)도 이러한 맥락에 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암사동 유적을 직접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향유 기반 지역재생 기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홍길 2023; 박인규 2020; 정해용 2019). 그러나 하나의 문화유산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여 가치 확장에 따른 향유 기법 변천을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굴 및 정비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한 후, 유적의 미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를 구분하고 이를 문화유산 향유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변용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발행 서류를 검토하였으며, 유적지 활용과 인식 변화는 신문 및 잡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평면 지도와 현황 사진을 활용하여 암사동 유구를 포함한 유적 경관의 시기별 변화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암사동 유적이라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단순히 고고학적 유산으로서 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향유 기법의 변천과 문화적 수용 양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점에 있다.

Ⅱ. 일제강점기 암사동 선사 유구의 발견과 향유의 태도

1. 조선의 고적조사사업과 암사동 유구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이데올로기 구축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고적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고적조사의 구체적 목적은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식민사관의 고고학적 증명을 도모하는 동시에, 식민 지배의 문화적 성격을 부각하는 데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매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보고서를 간행하였다(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는 제국대학 소속 관학자, 조선총독부 관료, 유물 수집가 등 아마추어 연구자, 조선인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와 계통에 의해 수행되었다. 고적조사사업은 조사 주체와 방식의 변화에 따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1909년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8~1935)의 조사 이전과 이후, ② 1916년 고적조사위원회 설치, ③ 1921년 고적조사와 신설, ④ 1931년 조선고적연구회 설립을 기점으로 한 구분이다(김대환 2017). 세키노 다다시는 조선 고적조사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가 진행한 조사 범위에는 암사동 유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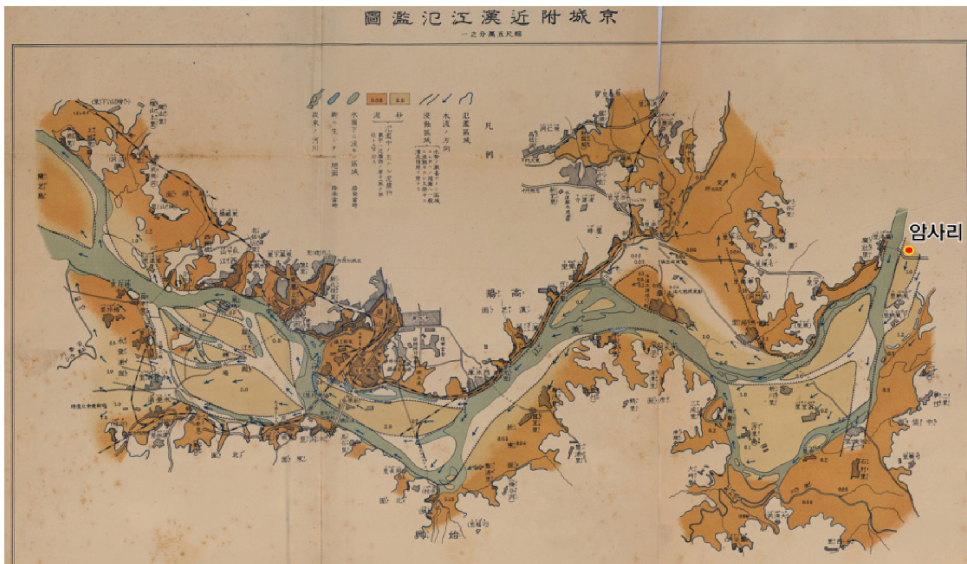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고적조사는 1917년에 간행된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 확인된다. 이 조사는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이자 동경제국대학 사학과에서 조선사를 전공한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가 1916년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행한 것이다. 이마니시 류는 1906년 경주를 처음 방문한 이후, 1907년 김해 패총 발굴, 1909년부터 한반도 각지 및 낙랑 고분 조사를 실시하였다. 1913년에는 동경제대에서 조선사 강의와 고고학 자료실 관리를 담당했으며, 1916년 조교수로 승진하였다. 이후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사 편찬 사업을 촉탁받고, 고적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 및 『대정6년도 고적조사보고』의 일부를 집필하였다. 이마니시 류가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 다룬 경기도 지역의 주요 유적은 백제국도터, 이성산성, 구천면 풍납리토성, 남한산성, 중대면 석촌동 고분군, 옛 광주 지역, 청태종 공덕비, 남한산성과 관련 사찰(법륜사, 봉국사) 등이다(정기학 연구센터 2019). 그러나 암사동 유적이 위치한 구천면 및 암사동 일대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일제강점기 초기에 일본인 전문가들이 실시한 고적조사 대상에는 암사동 유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당시 암사동 유적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고, 주목받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2. 을축년 대수해와 암사동 유구의 발견과 가치

암사동 유적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25년 을축년 대수해로 인한 자연재해였다. 1925년 7월 9일부터 11일, 15일부터 19일까지 두 차례에 걸친 집중호우로 총 강수량은 753mm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동부이촌동, 뚝섬, 잠실, 송파, 신천, 풍납동 일대의 마을이 유실되고, 용산, 마포, 영등포 지역의 대부분 주택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다(서울역사박물관 2024).

당시 피해 상황은 조선총독부 지질연구소가 1925년에 간행한 『大正十四年七月中旬京城附近ニ於ケル漢江氾濫調査報文(대정14년 7월 중순 경성 부근 한강 범람 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경성한강부근범람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도는 한강 주변 피해 범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며, 침수 지역을 침적물의 크기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구분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암사동 및 풍납동 일대에는 모래보다 큰 자갈 침적물이 주로 쌓였으며, 잠실, 이촌동, 여의도 일대는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모래 침적물이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그림 1] 「경성부근한강범람도」(출처: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25)

또한, 이번 수해로 인해 한강 내 하중도(河中島) 형태가 변형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5년 촬영 유리건판 사진 자료에 의하면, 암사동 일대는 당시 가옥이 모두 유실되고 별다른 구조물 없이 모래와 자갈로 뒤덮인 나지(裸地)와



[그림 2] 1925년 조사 당시 유리건판 사진(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같은 경관으로 변화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2).

일반적으로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을축년 대수해를 계기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시 신문 보도를 검토해 보면, 구천면 암사리와 풍납리 일대의 수해 피해 상황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조선일보」 1925.8.25), 암사동 유구의 발견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해 12월,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고와(古瓦) 수백 장이 발견되어 조선총독부 고적조사과가 이를 수습해 가져갔다는 내용이 신문 기사에 등장한다(「조선일보」 1925.12.17). 암사리 일대에서 발견



a: 광장동에서 본 암사리



b: 「경성부근명승사적안내도」

[그림 3] 광진교와 연계된 암사리(a: 국립중앙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b: 강전공 1938)

된 유구와 유물의 시대적 편년과 특성에 대한 언급은 1930년대에 들어서야 경성 교외 하이킹 코스를 소개하는 문헌에서 나타난다. 1938년에 간행된 『속경성사화(續京城史話)』에 수록된 「경성부근명승사적안내도」를 살펴보면, 경성 동부 지역을 지나 광진교를 건너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경로 중 ‘암사리’가 명기되어 있으며, 명승 및 사적을 나타내는 붉은색 ●로 표시되어 있다(그림 3b).

이러한 자료를 통해 암사리 일대에서 올죽년 대수해로 인해 신석기 유구가 노출되었음은 추정할 수 있으나, 당시 미디어의 대대적인 관심을 끌거나, 유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졌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암사동 유구가 포함된 하이킹코스

2007년에 발간된 국립중앙박물관 발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25년 대홍수 당시 암사동 일대의 지형 및 경관 변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에 제시된 측량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지도에 따르면, 신천리 일대 하중도의 상부는 기존의 뾰족한 형태에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형태로 변화하였으나, 암사동 일대 강변의 선형은 큰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유구가 노출된 과정은 광나루 방면 한강이 곡류하는 지점에서 대량의 토사가 밀려들면서 강가 하안대지가 침식되고, 점촌 마을 일대의 토지가 유실되면서 단면의 문화층이 드러난 결과로 해석된다. 문화층 내 유물 발견에 대해서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였던 요코야마 쇼자부로(横山將三郎)의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국립중앙박물관 2007), 확인 결과 해당 기록은 1953년 요코야마가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발견 시점의 직접 기록은 아니었다.

암사동 유적이 향유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광진교가 개설된 이후의 일이다. 광진교 개설 이전, 암사동 일대는 광나루 나루터를 이용하여 배를 통해 강을 건너야만 충주를 거쳐 동래 또는 원주로 이동하는 교통로로 활용되었다(그림 4a). 1920년대 기록에 의하면 우기에는 나룻배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했었다(그림 4b). 1930년대에 들어 대경성계획의 일환으로 경성 동부 확장을 목표로 교량 건설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광진교 건설이 추진되었다. 광진교는 한강에 건설된 두 번째 도로 교량으로, 1934년 8월 14일 착공하여 1936년 9월 30일 준공되었다(그림 4e, f). 교량의 총 길이는 1,037.6m, 너비는 9.4m였으며, 철근콘

크리트 게르버 T형교(608.1m)와 강트러스 단순교(439.5m)로 구성된 구조였다. 광진교의 개설은 남한산성 접근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충주 등 내륙 도시로의 이동을 크게 편리하게 만들었다.



a: 1895년 지도



b: 1910년 지도



c: 1915년 지도



d: 1926년 지도



e: 1937년 지도



f: 광진교

[그림 4] 암사리 일대의 지형과 광진교 개설(a~e: 국토지리정보원, f: 일제강점기 엽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디어에서 새롭게 유행한 용어 중 하나는 ‘하이킹’이었다. 이 시기부터 신문기사 등 대중매체에 ‘하이킹’이라는 용어와 함께 ‘코스’라는 개념이 결합하여 등장했다. 1937년에는 민영 전기회사인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자사가 부설한 경성 주변 전차 노선을 활용하여 서울 교외 경승지에 대한 하이킹 코스를 책

자 형태로 발간하였다. 『경전 하이킹코스』라는 제목의 이 소책자는 휴대가 용이한 콤팩트 형태(12.7×18.4cm)로 제작되었으며,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제1집 북한산, 제2집 비봉, 제3집 풍납리토성, 제4집 당인리, 제5집 양천, 제6집 벽제관, 제7집 남한산성 등이 순차적으로 발간되었다. 암사리는 제3집 풍납리토성 코스에 포함되어 소개되었다.

『경전 하이킹코스』는 각 코스별 지도를 첨부하여 경로를 도식화하고, 이동 방법과 소요 시간을 명기하였다. 책자의 성격상 경성에 부설된 전차 노선을 활용하는 경로에 제한되었으나, 1930년대 당시 대중이 경험하고자 했던 하이킹 코스의 특성과 문화를 엿볼 수 있다. 암사리를 포함한 코스는 ‘뚝도(蠓島) 방면으로부터의 코스’로 설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성은행 앞에서 대절한 버스를 이용해 뚝도(뚝섬)에 도착한 후,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석촌리를 경유하여 풍납리토성, 암사동을 지나 광진교를 거치는 경로였다. 전체 거리는 약 24km,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40분으로 제시되어 있다(그림 5).



[그림 5] 「풍납리토성」 하이킹 코스와 암사리
(출처: 경성전기주식회사(1938))

이 과정에서 암사동 일대의 경관은 사진 자료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광진교를 지나 한강변에 인접한 목가적 분위기의 풍경으로 묘사되었다(그림 6). 이는 암사동 일대가 1930년대 하이킹 문화 속에서 자연친화적 경관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8] 암사리 전경 (출처: 경성전기주식회사(1938))

신문기사에 등장한 암사리 관련 하이킹 코스는 ‘암사리 고적’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광진리에서 광진교를 건너 좌절(挫折)하여 강안을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암사리가 나온다. 이 암사리 근방은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부락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삼국시대에도 매우 번성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 꾸준히 발굴된 선사시대의 토기, 석기, 도편 등이 이를 증명한다. 더욱이 임우기(霖雨期)에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강안 단층에서 무수한 와력(瓦礫)과 기편(器片)이 노출되어 하이커의 취미를 충족시켜준다”고 서술하고 있다(『동아일보』 1939.11.2). 또한, 당시 ‘광진성지’로 불렸던 아차산성에 오르면, 한강 상류에 위치한 암사리 일대부터 광진교 부근의 풍납리토성, 송과진, 잠실리, 신천리, 남산 산성 수어장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동아일보』 1939.11.2).

이처럼 광진교의 개설로 암사리 유적이 하이킹 코스에 본격적으로 편입되면서, 선사시대 유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하이커들에게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만 이 시기의 향유 방식은 문화유산 보호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유물 채집 가능성 자체를 하이킹의 매력 요소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암사동 유적이 당시 대중에게 향유의 대상으로 경험되었지만, 문화유산 보호 개념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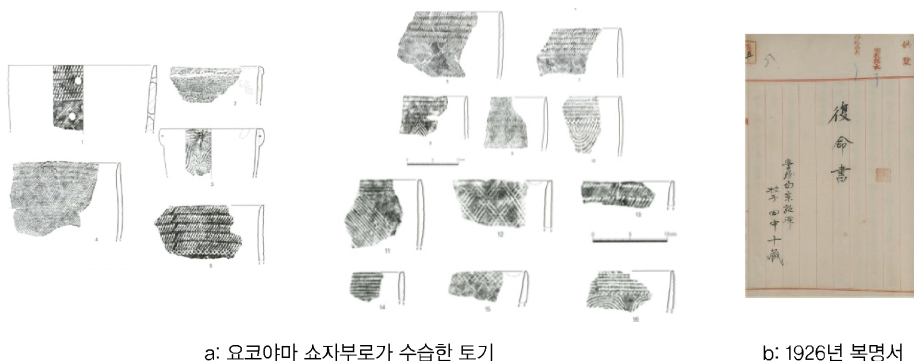
Ⅲ. 암사동 선사유적의 발굴 과정과 가치 부각

1. 일제강점기 암사동 관련 서술에서 발현된 역사적 가치

요코야마 쇼자부로(小坂部)는 1923년 경성제국대학에 부임하여 윤리학과 철학을 강의함과 동시에 고고학적 활동에서 상당한 열의를 보였다. 그는 부산과 함경북도 지역의 발굴 조사에 참여하였고, 주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강 유역에서 다수의 유물을 채집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10). 일본 귀국 이후인 1953년에는 『ソウル東校外の史前遺蹟(서울 동교 밖의 선사 유적)』을 저술하여 암사리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서술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 풍납리토성 인근 암사리 일대 밭이 유실되어 한강 강변으로 변모하였고, 이로 인해 빗살무늬토기와 석기

등 다량의 유물이 노출되었으며, 자동차로 여러 차례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수습되었다고 했다.

『ソウル東校外の史前遺蹟』에 의하면 홍수로 인한 격류에 의해 형성된 암사리 일대의 직선 단층에서 빗살무늬토기 파편뿐만 아니라 완형에 가까운 토기와 석기 단편이 발견되었다. 특히 직경 4~5m, 깊이 약 1.5m 규모의 수혈(豎穴住居址)과 수혈 하층 수평면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 그리고 부적으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다. 토기 조성 재료로는 운모를 혼입한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석면 및 골석을 혼입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요코야마는 암사리 출토 토기를 독일어로 'Kammkeramik'이라 표기하면서, 고고학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용도와 특징을 설명했다. 더불어 암사리와 망우리 유물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들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수습한 토기에 대해 실측 및 탁본을 실시한 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그림 7).



[그림 7] 1925년 암사리 유물과 조사 복명서(a: 국립중앙박물관 2010, b: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암사동 유적에 대한 공식 조사는 1926년(대정 15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 소속 기수(技手)였던 다나카 슈조(田中十藏)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토기 및 유물들은 1929년, 조선 식민통치 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조선박람회에 전시되었다. 당시 전시품 목록을 살펴보면, 환석(環石), 석포정(石庖丁), 유문토기파편(有文土器破片)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암사동에서 수습된 유물들은 「조선총독부박물관진열품회첩서(朝鮮總督府博物館陳列品繪葉書)」로도 제작·배포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습 당시 유물의 구체적인 형태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그림 8).



a: 1929년 전시품 목록

b: 총독부 박물관 진열 유물 엽서

[그림 8] 암사동 전시 유물과 일제강점기 관련 엽서(a: 국립중앙박물관 2010, b: 일제강점기 엽서)

『경전(京電) 하이킹코스 제3집』에서는 지도 후면에 암사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다. 당시 서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암사리 유구에 대한 1930년대 대중적 가치 인식과 평가가 일정 부분 확인된다.

광장리에서 광진교를 건너 길을 왼쪽으로 틀어, 흰 모래를 밟고 상류를 따라가면 암사리(岩寺里)가 있다. 대정(大正) 14년 7월의 대홍수 때, 이 강안(江岸) 일대 몇 개의 마을에 걸쳐 2~3장(丈) 깊이로 쓸려 나갔다. 원래 한강은 상류부터 다량의 토사(土砂)가 흘러 내려와, 끊임없이 강안을 매워 온 일은, 부근의 부락에서 정호(井戶)를 팔 때 등, 2~3장의 깊이가 된다면 대부분의 삼국시대의 토기나 선사시대의 유물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암사리 주변은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부락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풍납리토성 등 백제시대의 외성(外城)과도 연결되는 관계로, 하안(河岸) 부근에는 삼국시대에도 상당히 번성했던 것 같다. 게다가 마침 하수(河水)가 구부러져 흐르는 관계로, 그 침전물에 여러 종류의 물질이 흘러내려와 퇴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다수의 선사시대부터 퇴적되어진 유물은 대정 14년의 홍수로 그 일부가 노출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부터 수년 후까지도, 다양한 형태를 한 토기(土器)·석기(石器)·도편(陶片) 등이 채취되었다. 특히 석기시대의 것으로서 진귀한 것은 적색의 토기에 병행사선(並行斜線)을 실제로 대충 새긴 것이지만, 토기의 저부(底部)가 날카로운 원추형을 이루어 보통의 마루 위에 세울 수가 없는 것도 있었다. 아마도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강안의 모래 안에 꽂아놓고 세워 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것들 선사시대의 것은 미생식(彌生式)에 가까운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문양의 어느 부분에서는 미생식이지만 매우 드문 것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다음으로 고구려·백제시대의 종선문(縱線紋), 신라시대의 포목(布目)·시인문토

기(矢引紋土器), 백제 특유의 횡조병행선(橫條並行線)이 들어간 토기, 기와 종류의 파편과 고려청자, 조선시대 쇄모(刷毛), 목(目) · 삼도수(三島手) · 염부(染付)와 같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것을 발견하는 일 이 가능했다. 지금도 매년 홍수 발생 직후가 되면 고고학에 흥미가 있는 우리 다수가 왕래하는 모습이 있다.

『정전 하이킹코스 제3집』에 수록된 암사리 설명을 분석하면, 당시 발견된 토기는 적갈색을 띠는 빗살무늬토기로 추정되며, 문양은 어골문(魚骨文) 계통으로 보인다. 또한 암사동이 강안(江岸)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기의 저부가 뾰족한 첨저(尖底)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의 전형적 특징에 해당한다. 그러나 1930년대 당시에는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체계적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 유물을 일본 야요이시대(彌生時代, 미생식: 청동기시대)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한국 학계에서도 1960년대까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양 시대를 동시기로 간주하는 견해가 일부 존재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1960년 북한 지탑리 유적 발굴을 계기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가 명확히 구분되면서 정립되었다. 이후 암사동 유적에서 확인된 빗살무늬토기는 신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편년되었다.

한편, 암사동 유적에서는 신석기 유구뿐만 아니라 백제, 통일신라시대 유구도 함께 확인되었다. 2015년 이후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사동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 문화층,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수혈(竪穴), 통일신라 및 백제시대 주거지와 수혈, 고려시대 아궁이, 조선시대 기와가마 등 다양한 시기의 유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홍은경 · 문수균, 2008; 김기룡 외 2016). 이를 통해 암사동 일대는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주거지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동안 암사동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구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에도 고고학에 관심을 가진 일부 하이커들인 비전문가들의 산발적인 방문만이 있었을 뿐 체계적인 연구나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암사동 유적은 일제강점기 중 자연재해로 발견된 후 조선총독부의 개괄적 조사와 비전문가들의 관찰을 통해 선사시대 유적임이 확인되었지만, 본격적인 발굴 및 연구는 해방 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2. 1차 : 1925년부터 2000년 이전 발굴 후 밝혀진 가치

암사동 유적이 알려지기 이전, 『대정5년도 고적조사보고』에서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평양 근처의 미림리와 청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소개하였다. 당시 고고학 발굴은 주로 고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로,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언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암사동 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조사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루어졌다. 1967년 암사동 유적지 내에 야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던 중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면서 몇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968년에는 경희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영남대, 우석대, 전남대, 숭실대 등 8개 대학이 참여한 대규모 연합발굴이 진행되었다. 이 발굴에서 주거지와 야외 노지 등 유구가 확인되었고,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으나, 발굴조사 보고서가 제대로 간행되지 않아 연구 성과의 체계적 정리에 한계가 있었다. 1960년대의 조사는 지표 수습 유물과 일부 시굴조사 결과를 학술지나 신문에 단편적으로 투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립중앙박물관 주도로 본격적인 학술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1971년부터 1975년까지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약 30여 기의 주거지와 적석유구, 빗살무늬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이들 발굴조사 보고서는 2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발간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4, 1995, 2006, 2007). 비록 보고서 간행이 지연되었지만, 이 시기의 발굴 성과를 통해 암사동 유적은 중서부지역을 대표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임이 학술적으로 입증되었고, 1979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사적 지정 이후 1983년부터 1984년에 걸쳐 전시관 확장과 공원 조성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긴급 발굴조사 및 기초조사도 병행되었다. 1970년대 학술발굴이 본격화되면서 1980년대에는 암사동 유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임효재와 한영희는 암사동 유적 자료를 중심으로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 작업을 시도하였으며, 이들의 연구 성과는 1990년대 이후까지도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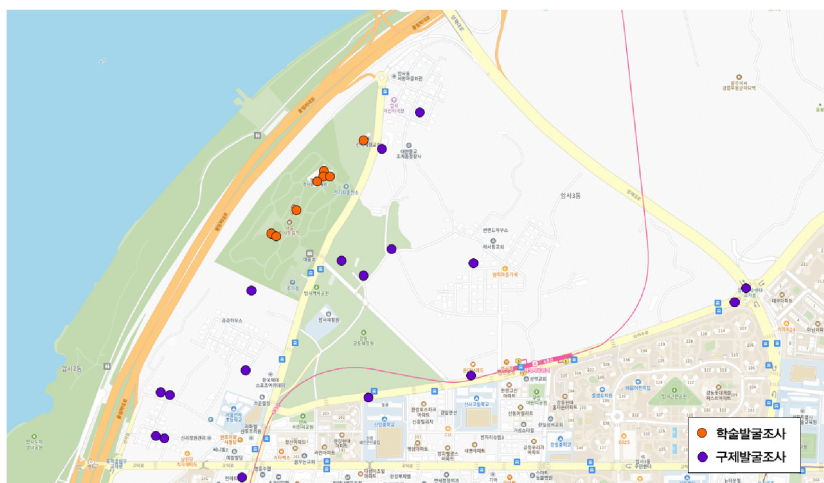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인 신석기시대 유적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기 구분이 세분화되었고, 암사동 유적에서는 토기 제작 기술, 생활 방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단순히 문양 패턴에 의존하던 분석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3. 2차 : 2000년대 발굴 후 밝혀진 가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의 도시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암사동 유적 주변에서도 산발적인 개발 공사가 진행되었다. 개발에 수반된 구제발굴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암사동 유적의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확고히 증대되었다. 도시화에 따른 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고, 암사동 유적의 가치와 문화유산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암사유적공원의 조성 요구가 본격화되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선사체험마을 조성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서울대학교 박물관과 경기고고학연구소가 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5년 중앙문화재연구원, 2006년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년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이 암사동 선사주거지 확대 부지 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이어 수행하였다(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 2010년에는 선사문화재연구원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이 추가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백문화재연구원이 시발굴조사를 통해 주거지 분포를 확인하였으며(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같은 시기 국방문화재연구원은 구석기시대 문화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토광묘, 조선시대 회곽묘 등을 확인하였다(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2015년에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 문화층을 확인하였고(한양대학교 2017), 2016년에는 한백문화재연구원이 입회조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해안문화재연구원은 조선시대 건물지와 석렬, 수혈 등을 확인하였으며(해안문화재연구원 2019), 2018년에는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가 신석기시대 및 삼국시대 주거지, 고려시대 아궁이와 수혈 등을 발굴하였다(한양대학교 2018, 2020). 같은 해 한백문화재연구원은 조선시대 기와가마, 분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한백문화재연구원 2020). 2019년에는 한울문화재연구소가 청동기시대 주거지, 삼국시대(백제)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및 수혈 등을 추가로 발굴하였다(한울문화재연구원 2021).

2000년대 이후 암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재단법인 형태의 발굴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미발간 보고서를 제외하더라도 총 15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시설 정비, 주택 신축 부지, 도로 확장 부지 등 택지개발을 위한 구제발굴이 주를 이루었



[그림 9] 암사동 발굴 위치

다. 특히 2014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보존·활용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암사동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와 보존정비 계획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유적과 역사공원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한 학술발굴이 포함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암사동 유적은 한반도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편년 연구의 세분화를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방사성탄소연대(C^{14}) 측정치를 참고하여 새로운 편년안이 제시되었으며, 기존의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선사시대'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미시적이고 정밀한 선사시대 유구로서 암사동 유적의 성격이 규명되기 시작한 시기였다(그림 9).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발굴성고가 축적되면서 암사동 유적은 단순한 보존 대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가치의 향유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기제로 기능하게 되었다. 더불어 현재까지도 발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Ⅳ.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향유를 위한 기법

1. 교육적 목적의 선사유적 공원 조성

1960년대 암사동 유적 발굴 성과를 통해 신석기시대의 상대편년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골동품 수집 위주의 '진품고고학'에서 '종합 발굴 및 정비'로 전환되는 변곡점으로 평가되었다(「조선일보」 1971.12.19). 1974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암사동 유

적은 선사시대 주거지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의 연간 발굴 예산으로는 종합적 발굴이 어렵고, 한강변의 홍수 위험과 함께 사질토가 주물공장 재료로 채취되는 상황이 유적 인멸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제시되었다(『동아일보』 1974.5.6). 이에 따라 유적 보존을 위한 조치와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사적 지정, 그리고 유구 보존을 위한 야외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1979년 6월 15일, 암사동 일대는 사적 제267호로 지정되었다(『경향신문』 1979.6.15).

사적 지정과 보존 조치 필요성은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진행된 제1차 한강종합개발계획, 특히 강변도로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택지개발과도 관련이 높다. 해방 이후 모래사

장이었던 암사동 일대는 한강 수해의 주요 대상지였으나(그림 10a), 1977년 12월 강남일로 불리는 구간에 제방도로가 축조되면서 수해 위험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암사동 유적은 한강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었고, 도로가 유적 경계의 기준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79년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당시 강남일로 안쪽 농경지 부분에 해당하였다(그림 10b). 이후 2009년 도로가 왕복 8차선으로 확장



[그림 10] 암사동 유적의 경계와 주변 현황(a~d: 국토지리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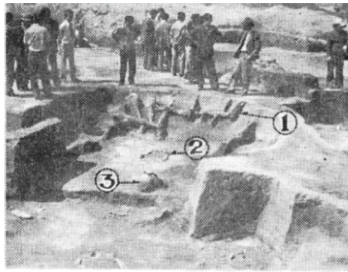
되면서 한강과의 단절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1986년에는 암사동 유적까지 연결되는 길이 636m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유적의 동측 경계가 확정되었다(「경향신문」 1986.1.8).

암사동 유적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형성된 도로망에 의해 지형적 경계가 규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유적은 인위적인 부지 한계 내에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사적 지정 당시 암사동 유적은 선사유적 일부에 해당하는 5,759평 규모만이 보호 대상으로 설정되었다(그림 10b). 이후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을 통해 보호 구역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1988년에는 약 24,000평까지 확장되었다(그림 10c). 1980년대 초반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암사동 선사유적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 1988년 10월 복원 정비가 완료되었다. 당시 정비의 기본 관점은 ‘유구의 보존 및 복원’, ‘유적지의 활성화(revitalization)’로 설정되었다(백찬규 1988). 유구의 보존 및 복원은 ‘움집터 보존 및 움집 복원 공사’를 통해, 유적지 활성화는 ‘선사시대 사적 공원 조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사적공원은 학생 및 일반 국민이 선사시대를 산교육으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을 목표로 조성되었다. 이는 암사동 유적의 공공적 성격을 문화유산 보호뿐 아니라 공원 조성을 통한 향유 영역으로까지 확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복원 관련 설계안은 1981년에 작성되었고, 1982년부터 1983년까지 전시관 설치, 1983년부터 1984년까지 움집 복원,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정문, 관리사무소, 매표소 등 공원 기능을 갖춘 시설물 구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그림 8). 1987년에는 생태학적 지표분석을 바탕으로 선정된 소나무, 참나무, 오동나무, 갈대, 억새 등 원시림 식생으로 숲을 조성하고, 토끼, 닭, 노루 등의 방목도 계획되었다(「경향신문」 1987.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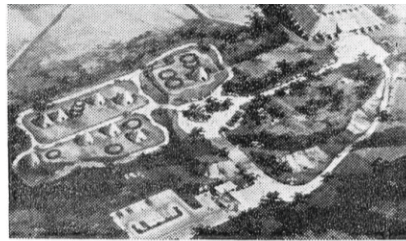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지만, 1985년에는 당시 용어인 문화재지구로 추가 지정된 18,200평에 대해 1988년까지 사유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1989년에는 움집 9채를 복원하여 일반에 개방하였다(「조선일보」 1988.8.11). 이처럼 문화재지구 확장 과정에서 사유지 매입은 계획 일정에 지속적인 차질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암사동 유적에 대한 종합정비방안에 따라 조성된 공원의 기본 목적은 문화유산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대중에게 알리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었다. 공원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은 안내판, 음수대, 화장실, 산책로, 주차장 등 일반적인 편의시설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암사동 선사유적의 디자인적 특징을 반영한 특수한 조형적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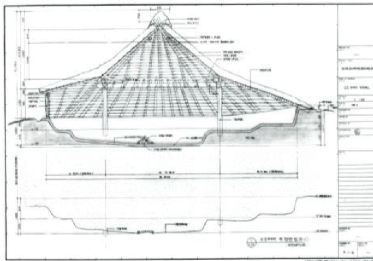
봉곡동 신석기시대 취락지 발굴현장. 중앙에 쓰러진 집기층 벽채 1가 보이고 작은돌로 만든 횡단 2 및 파괴된 빗살문토기 조각이 흩어져 있다.

a: 암사동 취락지 발굴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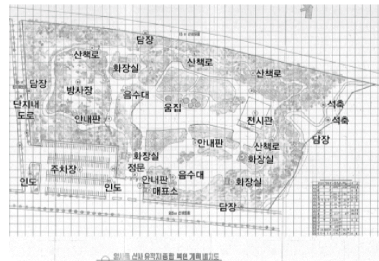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적공원 조감도. 기원전 3천년경의 신석기시대 움집을 재현하고 유물전시관을 건립, 사적공원으로 조성해 옛 조상들의 생활형태와 고려문화의 변화과정을 한눈에 살필수있는 교육장으로 활용된다.

b: 암사동 선사주거지 사적공원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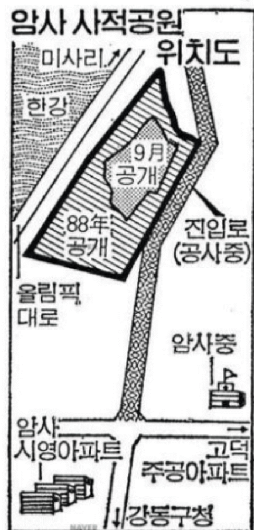
c: 1986년 제6호 움집 단면 설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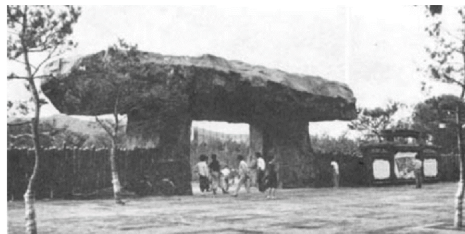
d: 1986년 정비 설계 평면도

[그림 11] 암사동 유적지의 사적공원화

(a: 「경향신문」 1975년 5월 27일 기사), b: 「경향신문」 1982년 10월 18일 기사), c · d: 국가유산청)



a: 암사동 공원



b: 암사공원 정문(1988년 사진)



c: 유물전시관(1988년 사진)

[그림 12] 암사공원 개원(a: 「조선일보」 1986년 7월 20일 기사, b · c: 국가유산청)

소는 부각되지 않았다(그림 12b). 다만, 공원 입구에는 고인돌 형태의 조형물이 정문 장식물로 설치되었는데, 이는 곧 문제로 지적되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유구로서, 신석기시대 유적인 암사동과 편년이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고인돌 조형물은 철거되었고, 대신 자연목 조형물이 설치되었다(KBS 뉴스 2010.10.4).

이후 암사동 선사유적을 상징하는 대표적 이미지로 ‘빗살무늬토기’가 선정되었다. 암사동 유적이 공원화되면서, 대중이 시각적으로 선사유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조형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고인돌 조형물 철거라는 시행착오를 거쳐 빗살무늬토기가 상징적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 강동구 곳곳에는 빗살무늬토기를 모티브로 한 다양한 경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선사유적지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 공원 일몰제와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노력

암사동 유적의 문화재지구 정비 방안은 문화재 보호구역 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공간에 대한 공원 조성까지 포함하여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굴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발굴 성과를 통해 암사동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는 한층 높아졌으나, 방문객을 유도하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암사동 유적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유산 향유 관점을 반영한 암사역사공원 조성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는 비닐하우스 재배 농지와 건축자재 야적장 등으로 점유되어 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적지 주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2년에는 암사동 선사주거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착수되었고, 2005년에는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를 대상으로 역사공원 현상공모 설계가 진행되었다. 이 공모에서는 ‘켜’라는 제목의 안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구암서원 복원, 빗고을뜰, 색동마당, 초화언덕, 여울마당 등의 공간이 도입되는 계획안이었다(환경과조경 제207호: 110).

2006년, 암사역사공원 부지인 암사동 211-1 일대 110,198㎡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약 3만 3천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총 6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을 계획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의 일환인 생활권 녹지 100만 평 확충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장종수 · 김충식 2006). 암사역사공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는 총 141,939백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동아일보』 2022.8.26). 그러나 최초 공원 지정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2026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실효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동구는 공원 일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보상 및 사업 추진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현재, 총 사업 면적 110,198㎡ 중 약 85.4%에 해당하는 94,112㎡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로 대표성을 확보한 일대는 암사역사공원뿐만 아니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한강과의 연결성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3년 중단되었던 ‘암사 초록길’ 사업은 2021년부터 재개되어, 2024년에 완공되었다(그림 13d). 또한 암사동 유적의 다양한 가치는 일련의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2014년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 · 활용 계획 학술연구’(강동구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4)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서울 암사동 유적 종합정비계획’(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7)이 수립되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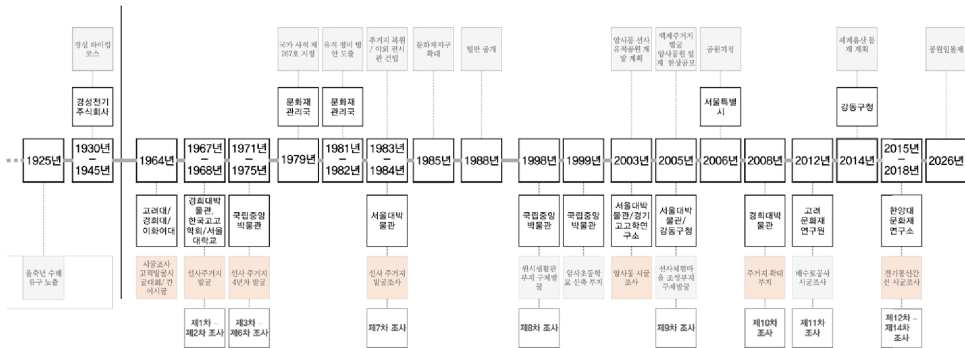
이처럼 암사동 유적은 공원화된 유적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암사역사공원과 암사 초록길 조성 등 일대 녹지 중심의 다양한 계획이 실천되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 노력 또한 병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과 창출,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의 역사적 가치 재발견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주민 자긍심 고취, 그리고 지방 도시 간 경쟁력 우위 확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3] 암사동유적과 암사역사공원(a: 항공사진, b · d: 강동구청 홈페이지, c: 환경과조경)

암사동 유적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문화유산 향유의 관점에서 암사동 유적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면,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화유산 잠재기’, 자연재해에 의한 ‘타자적 발견기’, 문화향유 대상으로서 가치가 발굴되고 경험된 ‘문화향유 경험기’, 문화유산 보존과 향유가 공존하는 ‘공존기’, 문화유산의 공공재적 가치가 강조되며 보편적 향유가 이루어진 ‘보편적 향유기’, 그리고 문화유산 가치와 향유의 외연이 확장되는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암사동 유적이 발굴 과정을 거치면서 유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향유 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한 특성에 기반한 것이다. 특히 선사유적이라는 특성상, 새로운 발굴 결과가 문화유산 보존 및 향유 방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임이 암사동 유적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14] 암사동 유적의 연대기표

V. 결론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발견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연대기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암사동 유적에서 나타난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와 향유 과정의 변화 양상을 검증하고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초기에 식민지 이데올로기의 정당화를 목적으로 고적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암사동 유적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암사동 유적은 1925년 을축년 대수해 당시 자연재해에 의해 노출되었으며, 요코야마 쇼자부로에 의

해 다량의 유물이 수습되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에서 개괄적인 조사가 실시되었다. 1929년 일부 유물이 조선박람회에 출품되었으나, 1920년대 암사동 유적은 대중적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둘째, 1937년 광진교 개설 이후 암사리 일대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면서, 1930년대에 유행하기 시작한 하이킹 코스에 암사리 유적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암사동 유적은 향유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셋째, 암사동 유적의 당시 가치는 하이킹 코스 소개 책자와 요코야마 쇼자부로가 1953년에 발간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빗살무늬토기와 수혈을 선사시대의 특징으로 인식하였으나, 면밀한 발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조치 역시 부재하여 유물은 하이커들의 수집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해방 이후에도 암사동 유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야구장 건립에 따른 구제발굴을 계기로 연합발굴과 국립중앙박물관 주도의 학술 발굴이 이어졌다. 비록 발굴보고서의 간행은 늦어졌지만, 완형 선사 주거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섯째, 사적 지정 이후 보존 및 교육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1982년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85년에는 문화재지구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더불어 암사동 유적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편적 향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암사동 유적은 우리나라 선사유적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암사동 유적 건너편 부지가 '암사역사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암사 초록길 조성 사업을 통해 한강과의 생태적·역사적 연결성 또한 강화되었다. 암사동 유적은 단순한 경계 내 보존을 넘어 주변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암사동 유적의 보존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향유의 관점에서 유적지 주변 변화 과정을 함께 고찰한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문화유산 향유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개발 계획과의 대립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 기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암사동 유적에 비견할 수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발굴을 통해 발견된 유물 및 유적이 현존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고일 2025. 4. 30 | 심사완료일 2025. 5. 26 | 게재확정일 2025. 6. 9

참고문헌

- 저서 및 보고서 -

- 岡田貢, 1939, 『續京城史話』, 京城: 日韓書房.
- 강동구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4,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서울 암사동 유적 보존 · 활용계획 학술연구」.
- 강전공(술) · 경성공립소학교교원회(편), 1938, 『속경성사화』, 경성: 일한서방.
- 경기학연구센터, 조선총독부 편, 정혜선 역, 2019, 『다이쇼 5년도 고적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기도 유적조사보고서』.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9a,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A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9b,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B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09c, 『서울 암사유적지 주변 선사로 고덕지구간 도로확장구간(2구간)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a,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C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b, 『서울 강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포장 내 유적(D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10c, 『암사지구 출토유물 기획전 학술대회 자료집』.
-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
- _____, 1995, 『암사동,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26책(Ⅱ)』.
- _____, 1999, 『암사동Ⅱ,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0책』.
- _____, 2006, 『암사동Ⅲ,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5책』.
- _____, 2007a, 『암사동Ⅳ,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6책』.
- _____, 2007b, 『암사동Ⅴ, 국립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37책』.
- _____, 2010, 『한강유역 선사유물, 橫山將三郎 채집자료, 일제강점기자료조사보고4』.
- 국방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암사동 유적-구리 암사대교 연결도로 건설공사부지 내』.
- 서울대학교박물관, 1985, 『암사동』.
- 서울역사박물관, 2024, 『을축년대흥수 그후 100년, 서울의 변화』.
- 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서울 고덕동 · 암사동 유적-서울 암사동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20, 『서울 암사동 기와가마 유적-서울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건설공사부지 내 유적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2017, 『2015 서울 암사동 유적-전기통신 간선공사 구간 내 시굴조사 보고서』.
- _____, 2018, 『서울 암사동 유적-2016-2017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 박물관, 2020, 『서울 암사동 유적-2018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양대학교ERICA산학협력단, 2022, 『서울 암사동 유적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 한울문화재연구원, 2021, 『서울 암사동 193번지 유적-서울 암사동(193번지 일원) 암사역사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 헤안문화재연구원, 2019,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소규모 발굴조사)』.

- 논문 -

- 구건서, 1999, 「일본의 문화정책」, 『일본학보』 43, 467-483.
- 김기룡 · 이상현 · 신의주 · 배기동, 2016, 「서울 암사동 유적-청동기시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중부고고학회 학술대회논문집』2, 중부고고학회, 39-6.
- 김대환, 2017, 「일제강점기 조선고적조사사업과 한국고고학사」, 『한국상고사학보』 97, 79-100.

- 김수갑, 2002,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범지구성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23, 227-262.
- 김영준, 2022, 「신석기시대 뎀돌칼과 생업활동-암사동 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43, 한국신석기학회, 35-56.
- 김원룡, 1962, 「암사리유적의 토기 석기」, 『역사학보』 17, 355-383.
- 김장석, 2007, 「사회적 측면에서 본 암사동 선사취락지의 위치」, 『한국선사고고학보』13, 한국선사고고학회, 29-48.
- 김정학, 1969, 「고고학상으로 본 한국문화의 기원」, 『한국문화인류학』 2(1), 2-6.
- 김홍길, 2023, 「역사문화유적 트레킹을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김천시 청암사 인현왕후길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3(4), 176-188.
- 남궁승태, 1998, 「역사적문화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법제도화 방향: 옛도시보존법(가칭)의 입법방향」, 『대불대 학교 논문집』 4(1), 227-251.
- 류호철, 2014, 「문화재 활용의 개념 확장과 활용 유형 분류체계 구축」,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7(1), 4-17.
- 박인규, 2020,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천 직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30(2), 118-132.
- 백찬규, 1988, 「암사동선사유적 복원정비 공사」, 『국립문화재연구원』 21, 역사와 과학, 246-265.
- 양성혁, 2007, 「암사동식 토기의 편년적 위치에 대한 검토」,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발표회, 중부고고학회, 99-107.
- 윤정국, 2015, 「신석기시대 석기·골각기 연구 현황과 과제」, 『고고학지』 21, 153-185.
- _____, 2021, 「서울 암사동유적의 석기제작기술과 체계」, 『한국신석기연구』 42.
- 이기길, 1991,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생계유형, 박물관기요 7』.
- 이동주, 2001, 「암사동 신석기문화 암사동 빗산문토기의 원류에 대한 새로운 시점」, 『한국선사고고학보』8, 한국선사고고학회, 35-56.
- 이순자, 2007,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슬기·금현섭, 2016, 「문화재 향유 만족도와 가치인식」, 『예술경영연구』 37, 65-93.
- 이창근, 2015, 「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자원화 방안: 궁궐·종묘의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5, 207-232.
- 이현태, 2011, 「1960년대 서울 암사동유적의 조사과정과-발굴조사 경위와 내용에 대한 소개를 중심으로」, 『고문화』77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32-53.
- 이화준, 2023, 「서울 암사동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 검토」, 『한국신석기연구』45, 한국신석기학회, 35-58.
- 이화준·김기룡, 2020, 「세계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고려한 서울 암사동 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암사 초록길 검토」, 『한국신석기연구』39, 한국신석기학회, 107-132.
- 장중수·김충식, 2006, 「암사 역사생태공원 계획」,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4(1), 85-94.
- 정성희, 1994, 「암사동 주거지에 대하여」,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85-96.
- 정해용, 2019, 「지역원형 복원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도 칠원군을 사례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9(1), 125-134.
- 조경철·이영한, 2021, 「암사동 신석기 유적 주거지 공간 특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21, 131-138.
- 지건길, 2007, 「암사동 선사주거지 유적의 효율적 활용방안」, 『한국선사고고학보』13, 한국선사고고학회, 15-21.
- 하인수, 2003, 「영선동식토기와 암사동식토기」, 『한국신석기연구』5, 한국신석기학회, 45-56.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 5, 한국고고학회.
 —, 1999, 「서울 암사동 신석기 유적과 선사유적공원으로서의 활용 현황」, 『한국신석기문화연구』, 735-714.
 홍길, 2021, 「다크투어리즘 유산의 현황과 활용에 관한 연구 -제주 4·3 유적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31(4), 18-31.
 홍은경, 2010, 「암사동 유적 신석기시대 토기의 시문기법」, 『한국신석기연구』 20, 한국신석기학회, 113-146
 —, 2021, 「암사동유적의 시간적 위치 재고」, 『고고학』 20, 중부고고학회, 5-28.
 홍은경·문수근, 2008, 「암사동 백제주거지 발굴조사」, 서울경기고고학회 학술대회, 중부고고학회, 75-82.
 內山純藏, 2001, 「縄文から岩寺洞へ」, 『한국선사고고학보』 8, 한국선사고고학회.
 朝鮮總督府地質研究所, 「大正十四年七月中旬京城附近ニ於ケル漢江氾濫調査報文」, 『朝鮮地質調査報告』 第5券.
 横山將三郎, 1953, 「ソウル東郊外の史前遺蹟」, 文學論叢 5(6).

- 신문기사 -

「경향신문」 1975년 5월 27일 기사.
 「경향신문」 1979년 6월 5일 기사.
 「경향신문」 1982년 10월 18일 기사.
 「경향신문」 1986년 1월 18일 기사.
 「동아일보」 1939년 11월 2일 기사.
 「동아일보」 1974년 5월 6일 기사.
 「동아일보」 2022년 8월 26일 기사.
 「조선일보」 1925년 12월 17일 기사.
 「조선일보」 1925년 8월 25일 기사.
 「조선일보」 1934년 10월 31일 기사.
 「조선일보」 1971년 12월 19일 기사.
 「조선일보」 1988년 7월 20일 기사.

- 잡지와 뉴스 -

환경과조경 207호.
 조선총독부 유리건판 사진
 2010년 10월 4일 KBS뉴스.
 강동구청 홈페이지.

The Beginning and Transition of Enjoyment of the Neolithic Age Discovered Japanese colonial era - Focusing on Prehistoric Sites in Amsa-dong-

Kim, Hai-Gyoung (Senior Researcher, Konkuk University)

Kim, Sun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examines the chronological transformation of the Amsadong Site from its discovery to the present, focusing on changes in attitudes toward cultural heritage and the processes of its enjoy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although active archaeological surveys were conducted in Korea during the early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msadong Site was excluded from these investigations. It was only after the Great Flood of 1925 that the site was naturally exposed, leading to the recovery of artifacts by non-specialists and a cursory investigation by the Religious Affairs Sectio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Despite these developments, the site did not attract public attention. In 1937, the opening of Gwangjingyo Bridge significantly improved access to the area, and during the 1930s, the site became incorporated into popular hiking routes, prompting a shift in its perception as an object of leisure. Although comb-pattern pottery and pit dwellings were introduced as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prehistoric period, there were no significant preservation measures at the time. After Korea's liberation, public interest in the site remained low until the 1960s, when rescue excavations during the construction of a baseball stadium brought renewed academic attention. Subsequently, the site's value was recognized, leading to its designation as a Historic Site in 1979 and the establishment of a preservation framework through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in the 1980s. In later years, the development of park facilities and the Amsa Greenway project enhanced ecological and historical connectivity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urrently, efforts are underway to expand the site's reach and to achieve inscription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traces the transformation of preservation practices but also examines changes in the ways the site has been enjoyed and how the surrounding space has been restructured over time.

Key words : The Great Flood of the Eulchuk Year, Amsa-dong Neolithic Age, Hiking, Comb-patterned pottery, Amsa Historical Park